

2007년 새해를 맞으며

정해(丁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전북지회 및 전국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7년에는 성경 빌립보서의 사도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빈곤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후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새해에는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봉사하게 된다.”고 마더 테레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봉사하기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알도록, 더욱 많이 배우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호스피스 철학과 개념에 대해, 전인 의료적 치유와 돌봄에 대해, 대상자분들의 증상과 대처방안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과 내 가까운 이웃에 대해 더 많이 참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면 진정 더 잘 살게 된다고 봅니다. 겸손과 참 자유함과 용기와 대담함, 그리고 사랑과 감사함의 마음을 굳이 임중에 가까워지만 어쩔 수 없이 갖추게 되어야 할까요. 죽음의 연속선상에 살아있는 지금,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철학과 정신을 한국호스피스협회에 가득 채우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호스피스사역이 융성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돌리십시오.

한국 호스피스에 있어 소명감에 따라 옥토밭을 일구어 오신 여러 선배선생님들과 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지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호스피스 동역자 여러분 더욱 강건하십시오.

2007 1년 26일(금)

한국호스피스협회 전북지회장 윤옥희(尹郁姬) 올림